

##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색깔**에는 나라마다 특별한 감정이 있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좋아하고 영국인은 갈색을 선호하여 왔으며 일본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청·녹색 계통의 색깔을 편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한 의식 등에서는 유달리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면 중국에 주(朱)씨 성이 많고 영국에는 미스터 브라운(BROWN)이 많으며 우리나라에 김(金)씨 아저씨가 많은 것도 이러한 색깔문화와 관계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사랑 받는 색은 보라색이다. 사람들은 보라색을 고귀하게 여겨 왔으며 특히 신성한 색으로 생각하여 성직자들의 법복이나 성복 등에 이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녹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 때 유럽을 지배하였던 이슬람의 상징색이 초록색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붉은색을 귀하게 여긴다. 붉은색은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붉을 赤”자는 해자(解字)하면 大火, 즉 큰불을 상징하는 집합문자가 된다. 이는 옛 사람들이 불의 막강한 힘을 붉은색으로 바꾸어 생각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러한 까닭에 동양에는 붉은색과 관련된 많은 풍속이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행이나 병마 같은 부정적 요소는 모두 귀신의 소치로 알았고, 그 귀신이 두려워하는 상징적 힘인 불(火)을 붉은빛으로 대신하였기에 우리나라에도 붉은 색과 관련된 풍속이 많았던 것 같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로 시작되는 봉선화 노래는 일본 점령기에 민족의 울분을 달래 주던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가사 속의 봉선화에는 노래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또 다른 풍속이 담겨져 있다.

옛날의 우리 소녀들에게는 손톱에 봉숭아꽃 물을 붉게 들이는 민속이 있었는데, 이는 요즈음의 매니큐어와 같은 화장술이 아니었다.

철들 무렵의 소녀는 귀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었기에 그 귀신의 접근을 붉은 색으로 막아보려는 처녀 안보 수단이었던 것이다.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 끝에 봉숭아 자국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풍속, 봉숭아 물 들이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붉은 봉숭아꽃잎과 초록의 잎을 약 8:2의 비율로 섞는다.
2. 랩이나 호일 위에 놓고 백반과 소금을 약간 넣어서 곱게 뺨는다.
3. 손톱위에 뺨은 봉선화를 조금씩 올리고 비닐 등으로 씌운 후에 실로 묶는다.
4. 12시간쯤 지난 뒤에 푼다. (초저녁에 묶은 후 자고 나서 풀면 좋다)

봉선화(鳳仙花)는 봉숭아꽃의 한자식 표기이며, 예전부터 우리는 봉숭아를 친근하게 사용하여 왔다. 모두 표준어이다.